

# 국민건강지수 전국 1위 고흥...목포 226위

### 광주 광역단체 6위·전남 7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불구 전국 평균 0.54점 '낙제 수준'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 비교에서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 전남은 7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고흥군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목포는 226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3일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홍석철, 윤양근, 유지수)이 건강보험공단·통계청·질병관리본부·삶의 질 학회 등에서 집계하는 국민건강 지표들을 통합해 만든 국민건강

지수를 2018한국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은 '국민건강지수로 살펴본 지역별 건강 격차'라는 논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건강지수는 1점 만점에 0.54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9년에 0.57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년 사이 5.8% 하락해 시간이 갈수록 국민건강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과 건강검진 진료율 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건강지수는 질병이환 및 사고, 건강행태,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인구변화 등 10개 영역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음주·흡연 등 29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전국 시도 지역별로는 울산(0.581)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0.567), 대전(0.561), 대구(0.558) 등으로 건강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0.514)가 가장 낮았으며, 부산(0.526)은 전국 14위로 나타났다.

6위인 광주지역 내에서는 광산구(0.593)가 가장 높았고 남구(0.553)·서구(0.545)·북구(0.51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구(0.509)로 나타났다.

전남지역(7위)에서는 고흥(0.617), 보성·장성(0.593), 구례(0.589), 광양(0.588) 등이 건강지수가 높았으며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은 목포(0.469)였다.

연구팀 관계자는 "의료보장 확대 정책으

로 검진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은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의 지표와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행태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건강지수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홍석철 교수는 "전남지역 내에서도 국민건강지수가 가장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는 등 지역 간에도 편차가 심하다"면서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시시하는 것인 만큼 향후 국민건강지수와 정부·지자체의 보건 의료 지원 및 보건 의료인 변수를 결합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5 / 해질 17:20 / 달뜨기 03:58 / 달지기 15:36

마스크 준비하세요  
오전에 비 그친 후 오후부터 황사 끼겠다.

지역	비	12/14	보성	비	10/13
광주	비	12/14	순천	비	13/16
목포	비	12/13	영광	비	10/12
여수	비	13/15	진도	비	12/13
나주	비	11/13	전주	비	12/12
완도	비	11/14	군산	비	11/12
구례	비	10/14	남원	비	11/13
강진	비	11/14	흑산도	비	11/13
해남	비	10/13			
장성	비	11/13			

◇바다 날씨

해역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5~3.0
서부	면바다(서)	남~남서	1.0~2.5	북서~북	1.5~4.0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나쁨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55	12:07
	17:27	--:--
여수	00:38	07:13
	13:08	19:13

◇주간 날씨

날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
강수량	1/9	1/8	-1/3	-4/3	-3/4	-2/5	-1/6

### 사망사고 최다 12월 고속도로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는 12월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벌인다.

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단 등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김용희 기자 kimyh@



우치공원에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 열중위키중인 백두산 호랑이 보존사업 홍보를 위해 KIAE이거즈 구단이 기증한 조형물이 3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공원 앞 광장에서 공개됐다. KIA구단 직원들이 호랑이 조형물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조사내용 직접 기록 하세요

### 경찰 메모장 교부제 시범운영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권리가 보장된다.

경찰청은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권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한다.

이에 앞서 경찰이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술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되는 수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공군, 4·6일 나주 비상할주로 접근훈련

공군은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비상할주로 상공에서 4일과 6일 항공기 접근훈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훈련 당일 날씨가 좋지 않으면 5일과 7일, 11일 가운데 날짜를 정해 연기한다. 훈련에는 KF-16 전투기와 T-50 훈련기 등 항공 전력의 참가한다.

공군은 항공기 소음 불편을 줄이고자 비상할주로 이·착륙 대신 높은 고도에서 공중 접근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기로 했다.

나주 비상할주로를 관리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달 세 차례 설명회를 열어 훈련 필요성을 주민에게 알렸다.

표승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장은 "비상할주로 접근 절차에 속달하는 훈련은 유사시 작전 지속성을 높이고 항공기 생존확률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동나비엔 "슬림매트 일부 제품 자발적 회수 조치"

경동나비엔은 "슬림매트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올해 공급받은 원단으로 만들어져 10월 4~19일에 출고된 슬림매트 7690장이다. 슬림매트에 'KD' 로고가 회색박스 내 음각 형식으로, 글씨가 흰색으로 표기돼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회수 절차를 안내하고, 2~3일 이내에 새로운 슬림매트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 접수처를 통해 회수를 신청해도 된다.

경동나비엔은 다만 회수 대상과 동일한 로고라고 하더라도 올해 10월 3일 이전에 수령한 제품은 모두 자체 품질 기준 이내의 정상 제품이며, 다른 온수매트 역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담은 전화(1661-4455),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kdnavien.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방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방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방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방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방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